



새로운 총학생회 학내문제 관심 가져야

바로 얼마 전 우리학교에서는 대선을 연상케 할 정도로 치열한 총학생회장 선거가 치뤄졌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총학생회를 이어왔던 여당이라 비유할 수 있는 한총련 계열의 후보와 그에 반대되는 계열의 후보의 각축으로 크게 나뉘어졌다. 많은 학교들의 한총련 탈퇴와 점점 확산되어지고 있던 한총련의 보수성과 관성적인 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이번 선거의 결과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됐다.

학교내의 선거인데 왜 이렇게 거창한 정책과 치열한 선거대결이 벌어지는지 놀라기도 했고, 어색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나라의 지성의 중심체가 될 수 있고 지금까지 학생운동이 우리나라 민주화에 기여해왔던 것을 조금만 생각

해 보면 한 대학의 총학생회가 어떤 생각을 가진 인물들로 이루어질 것인가는 무척 중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하지만 필자와 같이 평범하고 현실적인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총학생회는 한총련이라는 조직을 이어가는 것과 이미지를 바꾸는 것에만 급급하고,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멀리하면서 매년 똑같은 정책만을 내세우는 그러한 학생회는 아니다.

대학생다운 참신함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변화해 나갈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학교의 예산문제, 복지시설, 취업문제, 여학생 문제, 강의 질 향상 등 총학생회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 힘써야 할 곳은 너무나 많다.

이번에 당선된 총학생회에서는 한총련의 명맥을 잇게 된다고 너무 안주하지 말고 학내문제를 어떻게 풀이하고 발전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해 더욱 고

민하고, 긴장하여 주기를 바란다.

김세진
(국문 2)

정문안길 나무 통행불편 배어버리는 것이 좋을 듯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우리학교에 간 적이 있었는데 나는 넓디넓은 캠퍼스에서 종종 길을 잃은 적이 있었다. 한번은 아버지가 경희의료원에 친구분을 만나러 가셨을 때 나와 동생은 또 길을 잃을까봐 근처 나무하루를 붙잡고 서있던 기억도 난다. 아주 오래전이라 정확한 기억이 없지만 어쨌든 더듬어 생각해보면 정문을 들어서서 오른쪽 길가에 있는 커다란 나무가 아니었나 싶다.

오래전 인연을 생각해서라도 그 나무를 닦고 싶지는 않지만 입학후부터 지금까지 나는 정문을 향해있는 보도 한 가운데 딱하니 버티고 서있는 그 나무를 향해 적지않은 불평을 했다.

폭이 넉넉해서 여유있게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친구들과 여럿이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고 가다가도 나무를 만나면 꼭 한 번은 풀었다가 가아되고, 반대방향에서 오는 사람들과 지나칠때 밀접한 길에서 기다렸다가 지나가는 수고까지 해야할 때도 있다. 비가오는 날은 그 나무 때문에 좁은 길을 지나가느라 우산을 비스듬히 눕혀서 지나가야 되고, 나무 옆의 좁은 길을 지나가다가 발이 길 아래로 빠지면서 넘어

질 수도 있다. 학기초 필자의 친구 하나는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그 큰 나무를 미처보지 못하고 정면으로 얼굴을 부딪친 일도 있었다.

보기도 안 좋지만 우리나라 어느곳에든지 가로수가 길 한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거나 걸코 쉽지 않다.

왜 하필이면 그 위치에 나무를 심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이 따른다면 과감히 베어버리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든다.

김운정
(성악1)

교내 컴퓨터 관리 효율적으로 실시돼야

누구나 한 번쯤 교내 컴퓨터 사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을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컴퓨터 보유수의 부족과 각 컴퓨터의 관리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단대 로비나 휴게실에 있는 컴퓨터는 수강신청용에서 끝난다.

한국의 대학들은 경쟁력 키우기에 바쁘다. 특히 대학들은 각자 스스로가 정보화 시대의 첨병임을 자처하며 정보화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풍토에서 우리학교가 살아남을려면 학생들이 컴퓨터를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부터 시작해야 한다.

조현경
(국문1)

경희발전기금 출연내역 및 명단

작은 정성이 경희의 밝은 미래를 예감합니다.
21세기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학, 경희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탁자 명단은 접수순입니다.
(97. 11. 21~11. 28)

△주관진(영문82, 한국브리태니커부장)

1백95만원 도서 기증

The Great Books of the western world

△간호학과 발전기금

이미경(안산전문대교수, 박사과정) 50만원

박혜숙(상계 백병원) 60만원

조현숙(경기간전교수, 박사과정) 1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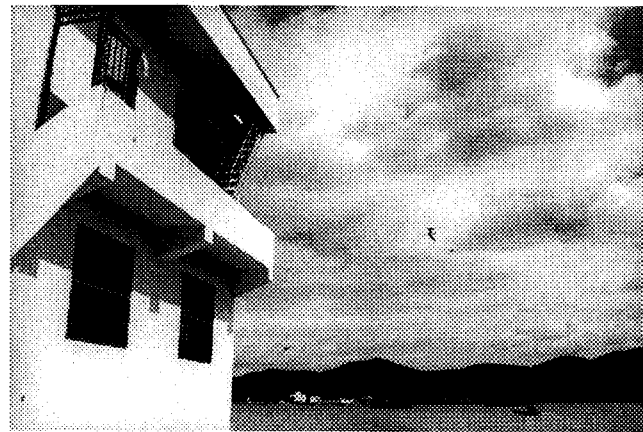
최양자(적십자간전교수, 박사과정) 5백만원

김승희(박사과정) 20만원

백숙희(석사과정) 5만원

윤경옥(석사과정) 5만원

독자사진



공간

구미선
(산업공 3)

독자시

나무

이상봉
(국문 2)

나무도 슬픈애야

정든 이파리 다 떨구고

익어가던 사랑마저 다 보내고

한줌의 물이 없는 마른 살로

누더기 같은 책장 하나

덜렁 띄워져 쓰고

한겨울 버려진 나무야

그러다가

겨울 잔여복음

온 몸이 얼어붙어 갈대

전디지 못할 양의 하라리

물가에 뿌리를 거두고 조용히 숨죽이다가

어느 새벽 언 손 고갈픈 마음 폐회는

장작으로라도 활활 타오르지는 거야

열린소리는 경희 가족 모두의 참여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애가를 대학주보는 성실히 들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시, 만화, 사진, 수필 등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의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대학주보에 건의하고 싶으신 사안 취재제보가 있으시면 학내 비치된 열린소리함이나 다음 PC 통신 ID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투고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량: 200자 원고지 4매 하이텔(ID): khunews
◇보낼곳: 서울·수원 본사 편집실 천리안(ID): khunews

□일번지 아저씨, 허욱씨의 부음에 접하여

영원히 기억될 따뜻한 마음

그저께 다녀온 경주의 산하에는 벌써 겨울 냄새가 묻어났다. 지난 주 며칠 동안 폭풍우가 몰아치고 마치 여름 장마처럼 장대비가 쏟아지더니 그 바람에 남도(南都)의 가을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던 은행잎들이 저 버렸기 때문이라. 그날 피곤하고 췌뚱뚱한 몸을 부리던 차에 고인의 부음을 들었다. "일번지 아저씨가 뇌혈혈로 돌아가셨다"라는

고인은 1983년 여름부터 모교 앞 서너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서 생맥주집을 시작하였다. 맥주 회사에서 근무하다 당시 유행하던 '오비 베어'라는 선술집을 차렸던 것이다. 대학원생이던 나는 이숙한 밤에 목을 축일 요량으로 텅 빈 그 선술집에 들렀던 기억이 생생하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일번지 오비베어'는 '바베류 통닭집'

으로, 또 '바니 치킨'으로 바뀌면서 주인의 머리카락은 희어져 가고, 새벽이 올 때까지 밤을 지새는 어찌도 점점 기울어 갔던 것일 터다. 그럼에도 주보(酒雨)의 서랍에 그득했던 학생증과 주민등록증, 그리고 전자계산기들에 아로새겨진 경희인에 대한 신뢰와 넉넉한 인심, 그리고 성실성은 변함이 없었다. 대학이란 단순한 교수와 학생 그리고 책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요즘 '사이버 대학'이라는 말도 있더라만, 난 새 것 좋아하는 이들의 편한 이름짓기 줌으로 거부한다. 사이버(cyber) 대학을 사이버(似而非) 대학으로 여기는 까닭은 거기에겐 몸의 만남, 접촉이 없기 때문이다. 대학이란 문자(文字)로만 이뤄지지 않으며 거기에겐 냄새와 눈길 그리고 무엇보다 대화의 개입해야 하는 것이

다. 논문 발표가 끝난 후 학교 앞 선술집에서의 대화 속에 대학의 불이 밝혀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기에 일번지는 단순한 선술집이 아니라 우리 경희대학을 구성하는 어엿한 문화 공간이요 학술 공간이었다.

그간 '일번지'는 시대에 대한 분노를 낙서로 표현하고, 동물이 끝난 이들이 뒤뚱이로 마음껏 노래부르고, 군대 떠나는 동료로 마지막으로 만나고, 다른 대학 친구들을 호기롭게 대접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60-70년대 학번들에게 '큰 엄마집'이 문학과 학술을 익히는 발효장이었다면 80-90년대 학번들에게 일번지는 사회 의식을 갈무리하고 의례(儀禮)를 치르는 마당이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등지를 떠난 우리들이 모교에 들 때면 회기동 네거리에 수줍은 듯 오도카니

들었다는 일번지에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곤 하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엉거주춤 선 채, 눈을 크게 뜨고서 환한 웃음을 머금으며 안부를 묻던 모습에 눈에 선하다. 그럴 때면 이곳이 젊은 시절 우리가 숨쉬었던 곳을 재확인하곤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역사로 들어서는 길목이 사라지고 말았다.

어쩌면 고인의 죽음은 근 15-6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젊디젊은 에너지에 칼날처럼 스치면서 상처입은 때문인지 모른다. 그 간난(艱難)한 세월 동안 우리 경희인들이 부담없이 갖들하여, 몸과 마음 그리고 지성을 온축(蘊蓄)시킬 공간을 제공하였던 고인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일번지 아저씨, 편히 쉬소서.
배병삼
(정의78.성심외국어대 교수)

朔風

극소수를 위한 잔치

얼마전 있었던 주유소 기름전쟁은 우리나라 정책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 중의 하나였다. 주유소 앞에서 기름을 사기위해 줄을 서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서민들의 모습들 속에서 가격을 전격적으로 올리는 국가 정책 생산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는 의구심마저 든다.

우리는 항상 이래왔다. Jellinek의 국가론까지 거론할 필요도 없다. 국가의 존재가치가 항상 국민을 위한 차원에서 운용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정책 생산을 위해 고려되어지는 것은 소수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누를수가 없다.

우리의 국가는 어려움을 겪을시 항상 국민 대다수의 희생과 노력들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국가 정책과 의견들은 대다수의 의견을 고려하는 과정이 배제된채 일부 이해당사자들만의 타산공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만을 양산하는 느낌이다. 물론 보여지는 현상만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 아니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는 현재 경제 위기라는 큰 파고 앞에 서있다. 앞다투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대적인 인원감축 기사는 일반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만큼의 거대한 반향을 일으키는 상황이다.

일부 국민들의 사재기를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이번 유가가격 조정은 좀더 아끼려고 하는 국민들의 소박한 소망마저도 저버리는 결과만을 보여준다. 소위 뒷통수를 호되게 얻어맞은 것같은 느낌마저 든다.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만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이 지도층에는 팽배해 있는 것 같다.

현재 정치권을 휘둘고 있는 대선인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들은 말 그대로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대의를 획득하기 위해 갖은 미사여구들로 채색하고 있다. 말그대로 아쉬울 때만 갖은 아양을 떠는 이중적인 모습들 속에서 국민 대다수가 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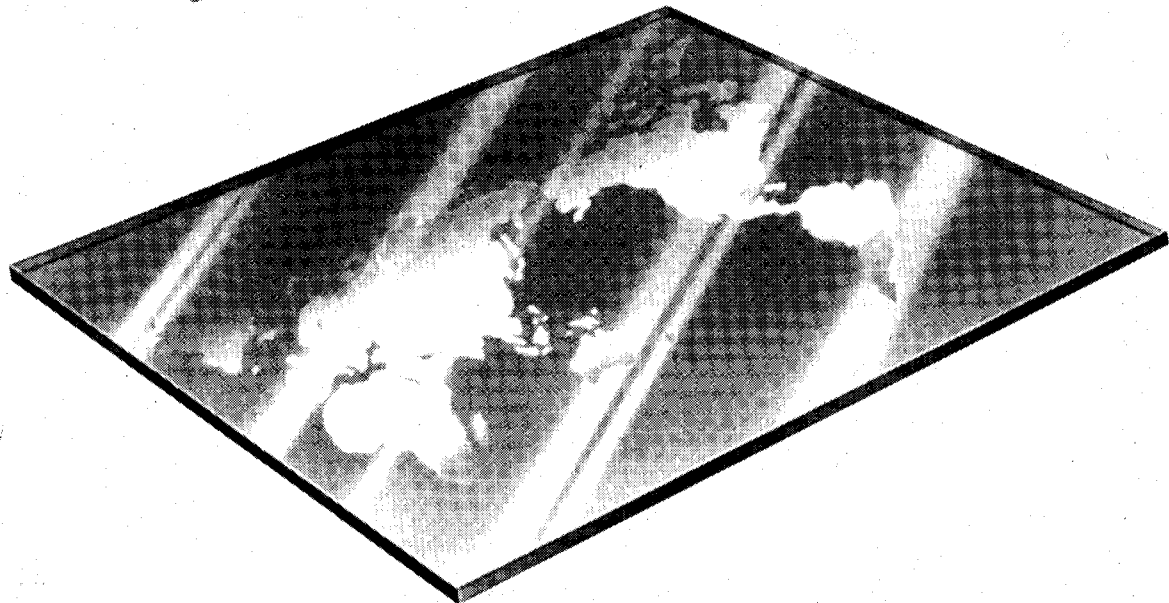
끼는 자괴감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지도 모른다. 하물며 IMF와 진행되고 있는 구제 금융이라는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알수 있는 것들이다.

상황이 이러할 진대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어디에 기댈 것인가.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아닌 국민들을 기만하는 정부의 모습이 대다수 서민 속에 각인되어 있는한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감은 불식시킬수 없다.

일개 국민 한사람으로서 한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에 무한한 슬픔을 느낀다. 우리의 희생과 노력만을 요구하는 국가는 더이상 국가로서의 의미가 없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감을 타파할수 있는 국가의 대대적인 변신이 필요하다. 항상 원론적으로 내리는 결론이지만 한국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할수 있는 유일한 말은 정치권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말 밖에 없다. 아주 원론적이고 당연한 말이지만 말이다.
(OSE 2032)

HANGLAS



세계 10대 유리메이커, 한국유리 - 40년 외길의 결실입니다.

불모지였던 국내 유리산업의
용광로에 불을 지핀 이래,
오로지 유리에만 전념해 온
40년 외길.
이제, 그 결실로 한국유리는
우리나라 유리산업 대표하며,
세계 10대 유리종합메이커로
성장하였습니다.

더 좋은 유리를 통해 세상을
밝고, 아름답고, 이롭게 —

HANGLAS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

한국유리가 만듭니다

판유리 · 관유리 · 유리섬유 · 유리장섬유 · 결정화유리 · 건축용안전유리 · 자동차안전유리 · 경질유리 · 실란트